

임종태†

한국과학문명사 시리즈의 두 번째로 출간된 이 책은 전근대 한국 지리학의 종합적 통사(通史)로서는 최초의 저서이다. 저자는 이전까지 분리되어 연구·서술되어 온 지도와 지지(地志)의 역사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묶었으며, 한국의 지지에 관한 한 사실상 처음으로 통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지도와 지지의 역사를 한 데 묶겠다는 발상은 전근대 한국 지리학의 모습을 더욱 충실하게 재현하겠다는 저자의 방법론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제작자 김정호(金正浩)가 “좌도우서(左圖右書)”라고 선언한 것처럼, 전근대 한국의 지리학에서는 이미지(지도)와 문헌(지지)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지상 세계에 대한 “상호보완적” 표상을 제공했다(20, 453). 그렇다면 지도와 지지의 역사가 분리되어 다루어진 일은 지도학이 전문 과학 분야로 독립한 오늘날의 지적 지형이 과거에 투영됨으로써 비롯된 일종의 왜곡인 것이다.

근대의 상식과 거리를 두고 과거 지리학의 모습을 복원하려는 저자의 시각은 전근대 시기 지도와 지지를 그 사상적,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지도학사의 선행 연구가 대개 “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 지도학의 과학적 발달 계통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해 온 데 대해, 전근대 사회에서 지도는 과학적 지도 제작법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23-25). 전근대 지리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 즉 과거 한국인들의 세계관, 국가 통치의 필요 등 지리학을 둘러싼 사상적·정치적 환경이 지리학적 표

---

† 서울대학교, jtlimbabo@snu.ac.kr

상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본론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전통 지리학의 전반적 특징을 개관한 뒤, 시대 순서에 따라 고대로부터 고려 시기(2장), 조선 전기(3장), 조선 후기(4장), 개항 이후 대한제국 시기(5장)를 다룬다. 각 장은 다시 해당 시기의 지도와 지지를 다루는 별도의 절로 나뉜다. 각 장의 분량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제2장 고려 시기까지의 서술은 간략한 반면, 조선 후기 지리학을 다룬 제4장은 책 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길다. 이는 현존하는 지지와 지도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이고, 그에 비해 고려 시기까지의 유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전통 지리학의 내용과 성격”이라는 제목의 제1장은 지도와 지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전근대 지리학 전반의 사상적·정치적·기술적 특징들을 일별하고 있다. 그 초점은 근대 지리학과는 구분되는 전통 지리학의 기술적·문화적 이질성을 소개하는 데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전근대 한국의 지리학이 “천원지방(天圓地方)”으로 요약되는 중국 우주관의 사상적 자장 안에 존재했음을 강조한다. 그 결과 천문과 지리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상관적(相關的) 사유, 방형의 지상 세계 중심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중화적 세계관이 조선 후기까지 지리학적 표상에 근본적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유입된 풍수 사상도 한국의 지리학에 영향을 준 사상적 요인으로서, 백두산으로부터 연맥(連脈)의 형태로 뻗어 내려오는 한국 고지도의 독특한 산세(山勢) 표현 방식이 그 두드러진 예이다.

지도 제작 방법의 경우에도 오늘날에 비해 폭넓은 선택지가 열려있었다. 한편에서는 방격(方格)이나 백리척(百里尺) 등 지리적 대상을 일정한 수학적 비율로 축소하는 기법이 채택된 정밀 지도가 제작되었다. 하지만 읍지도와 같이 작은 지역을 표현한 경우에는 산수화에서 쓰이는 회화식 기법도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경관 내의 관찰자 시점을 반영한 변동 시점을 채택하거나 읍치(邑治)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과장하여 축척의 일관성을 희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지도와 지지가 제작되고 향유되는 사회·정치적 맥락도 제1장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이다. 그에 따르면, 지도와 지지는 조세, 국방, 교화(敎化) 등 국가 통치의 실용적·이념적 필요에 의해 주로 정부에 의해 제작되었고 대개 국가의

기밀로 간주되어 민간으로의 유통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지도와 지지가 민간에 널리 유통·소비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민간 학자들도 지도와 지지의 제작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정부와 민간 영역 사이의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2장부터의 논의는 해당 시기에 제작된 개별 지도와 지지를 소개·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앞서 다루어진 한국 지리학의 주요 특징들이 되풀이하여 등장한다. 다만 저자는 이 과정에서 시기별 특징이나 그 변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경우, 건국 초의 제도 정비와 이후 성리학의 확산과 같은 정치적·사상적 환경 속에서 지도와 지지의 내용과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묘사하고 있다. 건국 초의 개방적 분위기 하에서 조선 정부는 몽골 시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포괄하는 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제작했다면, 16세기 초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심화되면서는 중국과 그 주변 세계만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 명나라의 세계 지도를 모사하게 된다. 유사한 변화는 지 지에서도 발견된다. 세종 대의 지리지의 국가의 통치와 행정을 위한 실용적 정보의 수합이 주된 목표였다면, 16세기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행정 관련 정보가 축소되고 해당 지역의 유교적 교화(教化) 정도를 보여주는 문화적·이념적 항목이 강조되었다.

제4장 “조선 후기의 지리학”은 그 분량만큼이나 많은 지도와 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지리학이 민간으로 확산되어 지도와 지지를 제작하고 향유하는 계층이 대폭 확대된 현상을 반영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지리학의 저변 확대와 함께 지도와 지지 제작 전통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지리학의 정밀성, 정확성, 사실성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지도학의 경우 18세기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로부터 19세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이르는 정밀하고 정확한 조선지도 제작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 흐름은 정상기와 같은 민간 학자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그 가치를 인식한 정부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중기 지리학의 문화적, 이념적 성격을 강조하던 흐름이 반전되어 다시 실용성과 사실성의 추구가 두드러지게 되는데, 저자는 이를 조선 후기 발흥한 실학풍의 한 가지 표현으로 해석한다. 조선 후기 지리학에서 일어난 발전의 두 번째 측면으로 저자가 꼽은 것은 지리학적 탐구 주제의 다변화이다. 민간의 학자들이 지

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 정약용(丁若鏞)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같은 인문지리학, 역사지리학 분야의 저술이 나타났다. 신경준(申景濬)의 경우는 조선의 교통 및 시장, 산과 강의 흐름, 연해 지역의 지리와 해로(海路)를 전문적으로 다룬 『도로고(道路考)』, 『산수고(山水考)』, 『사연고(四沿考)』를 저술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상과 같은 조선 후기 지리학의 발전상을 제1장에서 제시한 전근대 지리학의 범위를 넘어선 현상으로까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은 천문 관측 및 삼각 측량에 기초한 근대적 지도학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지지 또한 지역의 정보에 대한 백과사전식 나열에 머물러, 이중환의 『택리지』를 제외한다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근대 지리학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저자는 17세기 초부터 유입된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구설이 조선 후기 지리학에 끼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르네상스 지도학과 지리 지식이 일부 학자들에게 확대된 세계 인식을 심어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한국 지리학 전통의 근저에 자리 잡은 천원지방과 중화적 세계상을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지리학의 도입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간략히 다루는 개항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서야 서양과 일본의 영향 하에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의 장점은 한국 지리학의 전모를 역사학적으로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조망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주대학교에 임용되기 전 오랜 기간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일한 저자의 경력을 반영하듯 책 전체에 고지도와 지지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실물 감각이 배어 있다. 총 150여 종에 달하는 화려한 컬러 도판은 글로 된 본문 못지않게 한국 전근대 지리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면모를 드러내준다.

물론 이 책이 한국 전통 지리학의 종합적 통사로서 첫 시도인 만큼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평자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자의 균형감 있는 시각에 비견될 만큼 균형감 있는 서사의 구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를 다루는 장이 책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료의 편중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조선 후기를 여러 장으로 나누는 방식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각 장에서 지도와 지지를 분리된 절에서 다룸으로써, 저자가 강조한 이미지와 문헌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잘 드러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와 지지에 대한 연구가 분리된 상태로, 게다가 지도학에 지나치게 편중된 채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지형을 반영한다. 실제로 같은 장 내에서도 지도에 대한 논의가 훨씬 자세하고 분량이 많으며, 그에 비해 지지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루어진 면이 있다. 요컨대 이 책은 불균형한 사료 분포, 편중된 연구 지형에 기인한 제약을 넘어서려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불균형을 유지한 채로 역사적 종합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본론의 서술이 대부분 개별 지도와 지지에 대한 해설의 연쇄로 구성된 것은 균형감 있는 서사 구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저자의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저자는 결론에서 전근대 한국의 지지에 대해, 지상 세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개별 사실의 “백과사전식” 나열에 머물렀다고 한계를 지적했지만(451), 이러한 평가는 어쩌면 이 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이와 같은 종합이 없었다면 기존 연구 지형이 지닌 문제점도 이렇듯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지한 연구자라면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여러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들,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와 유용한 지침들을 접할 수 있다. 모든 학문적 종합이 그러하듯, 이 책의 빛나는 기여 또한 미래의 연구 지평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